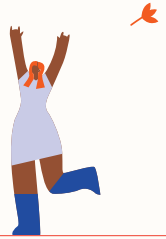


우



리

가



함

께

쓰

는

한국여성재단 소식지
딸들에게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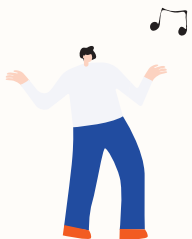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호 NO.159

평

등

의



페

이

지

함께 빵을 나누고 파동을 일으키는 관계

햇살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름의 한복판에서 인사드립니다. 기나긴 열대야 속에서도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0일, 성공회대학교 존데일리홀에서 열렸던 <유한김벌리 여성NGO장학사업 20주년 기념행사>가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6년, 같은 공간에서 10주년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해 봄학기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에 부임했던 저에게도 이번 행사가 지닌 의미는 남다르고 깊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을 처음 알았던 때를 돌이켜봅니다. 오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시간강사로 일하던 2007년 봄, 이화여대 여성학과와 지인이 이끌었던 '100인 기부 릴레이'에 초대받은 것이 재단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재단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1999년 12월, 53명의 공동위원장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시킨 한국 최초의 여성 민간공익재단.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당시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운동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3년에 걸친 모금으로 78억 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해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절하게 한국의 여성운동을 지원할 것인가'는 여성재단의 끊임없는 실존적 질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익숙해진 슬로건, "딸들에게 희망을"에는 진영을 넘어선 시대적 합의와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와 축하, 응원의 시간을 담아낸 이번 '연대의 20년, 변화를 향한 새로운 파동'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멋진 협동의 경험이었습니다. 성공회대 실천여성학전공 17기 졸업생 5인으로 구성된 기획단과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의 훌륭한 콜라보 덕분이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함께'를 뜻하는 접두사

(Com-/Con-)와 '일하다, 수고하다'라는 뜻의 동사(Laborare)가 합쳐진 라틴어 'Collaborare'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주체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긍정적 협업'을 뜻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성공회대를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파트너(Partner)의 어원 역시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틴어로 빵을 뜻하는 'Panis', 나누다는 뜻의 'Partire'에서 비롯되어, 본래 '한 덩이의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 파트너는 단순한 상대방을 넘어 삶과 자원을 함께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책임을 공유하며 호흡을 맞추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파트너로서 협업한다는 것은 신뢰와 지속성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책임지는 관계를 뜻할 것입니다.

여성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두고 더 나은 지원 방법을 모색해 온 지난 시간들. 유한김벌리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학교의 총장과 대표, 담당 실무자들은 계속 바뀌어 왔지만, 서로 다른 섹터 위치에서 파생되는 상이한 조건과 언어, 요구를 가진 파트너 단체들이 유연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재원을 투명하게 배분해 온 이 놀라운 협업의 과정은 재단 구성원 모두에게 끊임없는 치열함과 긴장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성운동 지원을 정체성으로 삼아 출발한 한국여성재단의 지속가능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을 키우려' 하는 재단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원들에게 여성단체활동가들의 학습을 지원하며 축적된 경험과 관계는 과연 어떤 성장의 자원이 되고 있을까요? 언젠가 함께 둘러앉아 이 따뜻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면을 빌어, 실천여성학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한국여성재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주임교수



Contents

여는 글	함께 빵을 나누고 파동을 일으키는 관계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주임교수	02
더 스토리	2026 W액션나눔캠페인 : 우리가 함께 채운 평등의 페이지	04
	유한김벌리 여성NGO장학사업 20주년 : 사람을 키우는 일이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믿음	08
현장 속으로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 :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12
	여성운동 생태계조성사업 Brave Changes 성과공유회 : 함께 꾸는 꿈을 현실로, 3년의 여정	15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첫 만남 : 카메라 렌즈로 세상의 경계를 넓히다	18
만나고 싶었습니다	쥬순이가 전하는 위로와 연대, 수키도키 작가를 만나다 : 전파되는 나눔의 힘을 믿어요	21
	10년차 성평등 교육 활동가 김정은 강사를 만나다 : 디지털 세상의 안전한 내일을 그립니다	24
재단소식	재단활동	27
	기부자 명단	30
	수입과 지출	32

♥ 후원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 인스타그램 @womenfund
📺 유튜브 www.youtube.com/kwomenfund
🎧 해피빈 happylog.naver.com/hlog/womenfund/home

딸들에게 희망을 2026년 상반기호 NO.159

발행인 장필화 편집인 노지은 기획·편집 나눔기획팀 발행일 2026년 8월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디자인 그래픽오션

2026 W액션나눔캠페인

우리가 함께 채운 평등의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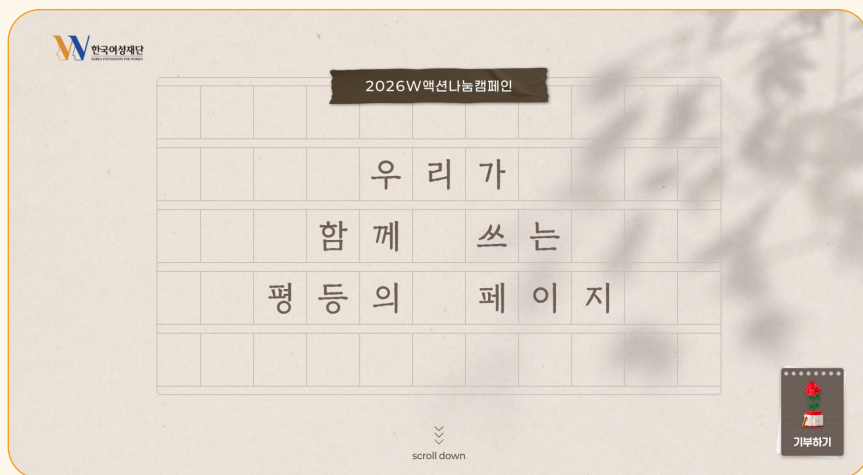
더 스토리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인종, 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는 한국여성재단이 설립 이래 지켜온 약속이자,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사업의 기금을 모으는 <2026 W액션나눔캠페인>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쓰는 평등의 페이지'라는 주제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바꾸어야 할 현실의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일터와 가정에서 반복되는 불평등, 제도와 문화 안에 자리한 배제는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올해 캠페인에서는 <2026 W액션나눔캠페인> 웹페이지를 통해 부당한 현실의 단어를 바꾸어보고 평등의 페이지에 한 줄을 남기며, 함께 만들고 싶은 내일을 그려보는 참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올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인스타그램 작가와 협업해 평등의 의미를 보다 친근하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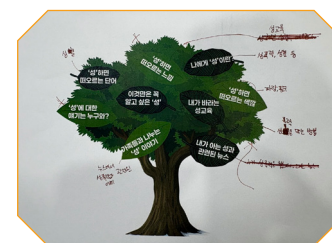


#관계에서 기술까지

성평등의 기준을 다시 세우다

W액션나눔캠페인으로 모인 기금은 여성폭력과 차별, 인권, 돌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여성공익단체들의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며 한국여성재단은 202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선정된 12개 단체 가운데 4개 단체의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역과 일상에서 성평등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네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진주여성민우회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설문조사와 인식 개선 캠페인
경남지역 3개 대학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학 인권센터 자료를 분석하고 학생 FGI와 개별인터뷰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역 전문가(경찰·법조인·상담소 등)와 공유하며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재단은 FGI 현장을 참관하며 학생들이 관계 속 통제와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온라인 그루밍·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의 여러 유형과 대응법을 배우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왜곡된 남성성'에 대해 돌아보고, 교육 참여자들이 '성평등'에 대한 보드게임과 영상 등을 제작해 또래와 배움을 나눕니다. 재단은 교육 현장을 찾아, 학생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실천을 고민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춘천 YWCA - 병원 간병인을 말하다 '돌봄의 최전선'

병원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운영합니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터뷰집 《돌봄의 최전선》을 발간해 간병노동의 가치와 현실을 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재단은 자조모임에 참석해 간병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경험이 공감과 지지로 이어지는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 젠더교육플랫폼효재 - 라운드테이블 'A.I.와 성평등-A.I.가 가져올 사회 변화, 젠더로 묻다'

빠르게 확산되는 AI 기술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는 라운드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연구자와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데이터·알고리즘의 편향, 딥페이크 등의 젠더폭력, 여성노동과 개인정보 문제를 짚고, 성평등과 인권을 반영한 AI 정책과 여성운동 현장의 대응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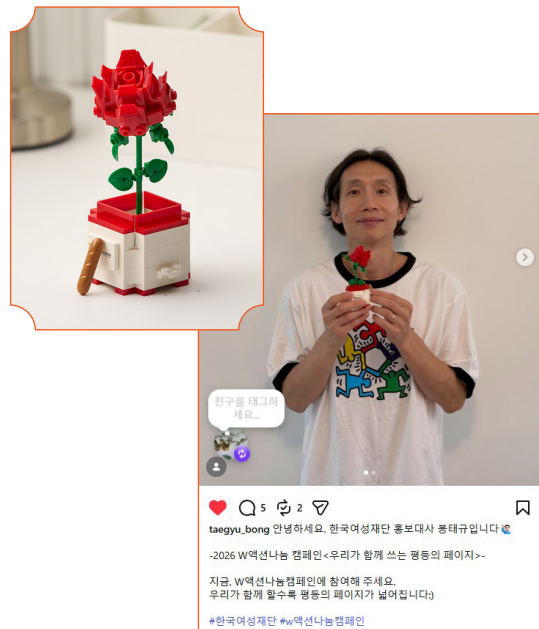
#터다 작가와의 인스타툰 협업

당신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인스타툰 보러가기

올해 W액션나눔캠페인은 성평등의 가치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전하기 위해 인스타툰 작가 '터다'님과 함께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의 모습에서 시작해, 아내와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나답게 살아가는 사회,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 고민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더 안전하고 평등한 내일을 그려보는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캠페인 굿즈

세계여성의 날의 시작, '빵과 장미'

이번 캠페인 굿즈는 세계여성의날의 상징 '빵과 장미'를 모티프로 한 DIY 브릭입니다. 작은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장미를 완성하듯, 내일의 평등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기부자님들께 이러한 의미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성평등기금과 함께하는 기부자 이야기

차별 대신 존중을, 폭력 대신 안전을, 침묵 대신 연대를, 배제 대신 포용을!

“
나눔은 씨앗과 같아서, 심고 가꾸면 10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과 15년째 함께해 주고 계신 최형미 기부자님

〈2026 W액션나눔캠페인〉에 많은 기부자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
여성미래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 창출한 수익금을
기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이
의미 있는 캠페인을 이어가 주시길
응원합니다.”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플랫폼 커넥플

“
누구나 자기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제 작은 나눔이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내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3년 연속 캠페인에 참여하신 신을진 기부자님

한국여성재단의 오랜 파트너인 유한킴벌리는 올해로 22년째 사원 참여 캠페인 〈딸들에게 희망을〉을 진행하며 성평등기금 조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인 기금은 202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기획 공모 주제인 '성평등한 돌봄사회 조성' 사업에 사용됩니다.

성평등기금 기부 참여 방법

- 나눔계좌
농협 1279-01-000251
- 온라인 참여



〈2026 W액션나눔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캠페인은 마무리되었지만 성평등기금 모금은 연중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메시지와 나눔은 여성공익단체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평등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글 - 나눔기획팀 박정아, 배소영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20주년

더 스토리

사람을 키우는 일이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믿음

여성운동은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성평등 정책을 만들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고 새로운 사회 의제를 제안하는 일까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는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여성활동가들의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활동가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과제는 늘 시급했고, 활동은 쉼 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200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학교, 유한킴벌리는 바로 그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여성활동가들이 배움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서로 연결되며, 더 오래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자료집》 표지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1기 장학증서 전달식

#배움에서 시작된 성장과 변화

이 사업의 출발점은 언제나 '배움'이었습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 전공)을 통해 20년간 195명의 활동가가 현장의 경험과 학업을 연결하며 전문성을 키워왔고,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한 NGO여성리더십과정(이화리더십개발원) 역시 1,150명의 여성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또한 '장학생 네트워크 사업'과 '여성운동아카데미'는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활동가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여성운동의 경험을 확장하는 든든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16기 연구보고회 및 16기·17기 장학증서 전달식, 16기 최장미 장학생



19기 연구보고회 및 20기 장학증서 전달식, 20기 남지은 장학생

사업의 형태는 다양했지만 변하지 않은 가치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여성활동가 한 사람의 성장이 곧 조직과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20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성장한 여성활동가들은 여성인권, 노동, 돌봄, 교육, 연구, 지역운동,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며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시민사회의 의제를 확장하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숫자와 목소리로 확인한

지난 20년의 임팩트



최근 진행된 장학사업 임팩트 연구는 이 사업이 지난 20년간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사회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결과, 참여 활동가들은 교육을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을 깊이 있게 내면화했으며 자신의 활동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정책 현장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로 '만족과 몰입 → 지식의 확장 → 정체성 확립 →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개인이 각자의 성장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조직의 변화와 성평등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성과였습니다.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1,345명의 여성활동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시 이해하고 활동의 의미를 재발견하며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왔습니다.

“ 예전에는 소속된 기관의 실무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외부 단체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며 지역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었어요.

“ 정책은 전문가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여성의 시각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해졌고 그 분명한 이유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 장학사업 임팩트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소감 중에서

지난 6월 30일에는 성공회대학교 이천환 기념관 존 데일리 홀에서 그동안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역대 장학생과 교육과정 수료생, 여성활동가와 사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활동가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주년 기념행사 현장

#미래를 향한 다짐
: 더 넓은 연대와
더 깊은 실천으로

오늘날 여성활동가들이 마주하는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입니다. 기후위기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그리고 돌봄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는 새로운 역량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유한킴벌리와 함께 여성NGO장학사업을 지속하며 더 많은 목소리를 연결하고 더 깊은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들이 활동가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변화를 만들어온 축적의 역사였다면, 앞으로는 시대가 던지는 낯선 질문들에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2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20년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이 길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실천여성학 20주년을 축하하며

- 국경을 넘어, 미래를 향하여

조희연 | 전 서울시 교육감,
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장

실천여성학전공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원의 하나의 교육과정이 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는 실천여성학이 단순히 교육과정을 넘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사람을 길러내는 살아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NGO대학원장 시절,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현장의 경험을 이론과 만나게 하고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석사 과정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이 여성운동의 미래를 책임질 활동가들을 위한 실천여성학전공으로 꽃 피었습니다. 특히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가 함께한 미래 여성NGO리더십 장학사업은 이 교육과정이 지속될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성공회대학교와 한국여성재단, 유한킴벌리가 함께 만들어 낸 협력은 우리 사회가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사회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실천'이라는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쌓은 경험이 강의실에서 해석되고, 강의실에서 얻은 통찰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의 공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과정이 한국 여성운동의 성숙과 확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을 떠받치는 새로운 리더십을 길러냈습니다.

이제 저는 실천여성학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배움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경은 사람을 나눌 수 있지만, 정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는 국경을 넘습니다. 실천여성학전공이 그 길을 가장 먼저 열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년이 뿌리를 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세계를 향해 가지를 뻗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님들,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 관계자 분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온 지난 20년은 아름다운 역사였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한 희망의 역사이기를 기원합니다.

※ 축하 원문을 지면에 요약해 담았습니다.



20주년 기념행사 단체사진

글 - 지원사업팀 임공주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

현장 속으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혼자였으면 시도조차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여섯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책을 만든 참여자의 소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풀어내고 그림으로 옮겨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까지, 그만두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곁에서 함께 작업하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은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를 지원하며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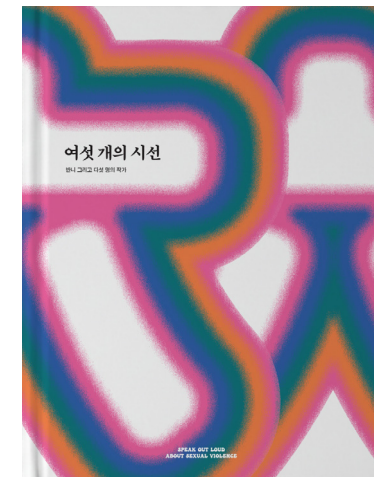
2024년-2025년에 걸쳐 국내 6개 단체와 1개 국제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2025년-2026년에는 새롭게 7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로 젠더폭력을 알리는 곳도 있고, 시민들과 만나며 지역에서 직접 활동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림부터 영상까지, 콘텐츠로 마주하는 젠더폭력



지난 3월 19일에는 7개의 참여 단체가 중간보고회로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각자의 현장에서 만들어온 변화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반성폭력운동하는언니들(반니)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그림책 《여섯 개의 시선》을 만들었습니다. 손그림과 디지털 드로잉, 글, 시로 만든 이미지까지 저마다 편한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 편씩 풀어냈고, 책 디자인은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완성된 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반니, 《여섯 개의 시선》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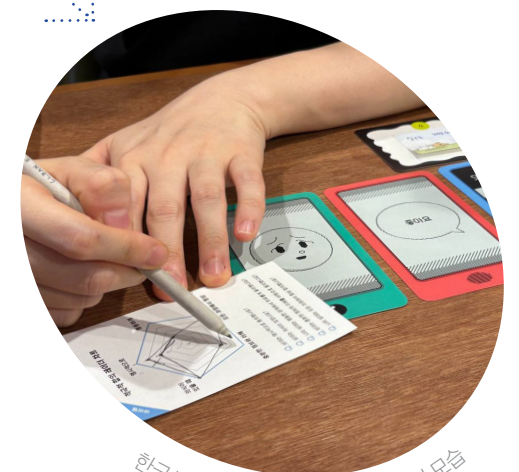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적극적 합의’를 주제로 한 교육용 카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관계 카드와 표정 카드, 플레이 보드를 놓고 10대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해 학교와 대안학교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쿼어 군인 등 여러 현장과 참여자에게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한 참여자는 “선택지가 좁은 사람은 쉽게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드 한 장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동의’가 혼자만의 의사 표현만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와 상황, 힘의 문제라는 데까지 닿았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일터 내 젠더폭력’을 주제로 솜뿔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성차별적인 농담, 외모평가, 회식 자리에서의 강요처럼 많은 여성이 겪고 있지만 그냥 넘겨온 순간들을 시민들이 직접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온라인에서 공유되었고, 이를 통해 일상 속 간과되는 젠더폭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동시에 젠더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한국성폭력상담소, 카드게임 활용 중인 모습

#현장에서 걸어 올린 목소리, 함께 엮을 안전망

활동형 사업은 저마다의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진주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의 노동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이주여성의 일자리와 비자 정책, 이주 브로커, 한국의 유흥산업이 서로 얹혀 있다는 것을 시민들과 같이 확인한 활동이었습니다.

원주여성민우회는 영화와 캠페인, 교육을 한데 묶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시민이 만든 성평등 영상 챌린지, 평등 지도 체험, 보드게임 교육 등을 진행하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성평등'은 누구나 함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여민회는 작년에 이어 제주 읍·면 지역 여성들과 '농촌 페미니즘 프로젝트'를 이어갔습니다. 농촌에서 마주치는 젠더폭력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거듭했고, 지난해 만든 매뉴얼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 보며 다듬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선 넘는 페미니즘' 프로젝트로 성별이분법이 만들어내는 차별과 폭력을 짚었습니다. 대학의 학생활동가와 단체 활동가가 자문 회의에서 만나 혐오와 차별의 모습을 하나씩 살폈고, 그동안 교류가 없던 대학 내 모임들과도 새롭게 연결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내딛는 한 걸음

중간보고회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닌 서로의 경험을 주고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성과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꺼내놓았습니다. 참여자를 끝까지 만나기 쉽지 않았던 일, 안전한 모임을 만드는 방법,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한 단체의 고민이 다른 단체의 경험과 만나 실마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젠더폭력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어서, 대응하는 방법도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누군가는 담론 형성을 위한 교육용 카드게임을 개발하며 다른 누군가는 현장에서 현실과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을 살피고 토론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할 자리는 제각기 달라도, 혼자 속앓이 하며 견디지 않아도 되는 자리, 목소리를 꺼내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같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이런 시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들과 함께 걸겠습니다.

글 - 전략사업팀 장근영

여성운동 생태계조성사업 Brave Changes 성과공유회

현장 속으로

함께 꾸는 꿈을 현실로, 3년의 여정

<여성운동 생태계조성사업 Brave Changes>는 한국여성재단이 2023년 8월부터 3년간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여성 운동 의제를 발굴하는 '여성운동 지원사업',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코어 지원사업', 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돕는 '콜라보 지원사업', 그리고 '활동가 심 지원'과 기획 지원까지. 총 74개 단체와 함께 여성운동 생태계를 촘촘하게 잇는 여정이었습니다.

6월 11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여성운동 생태계조성사업 Brave Changes 성과공유회 'We are Brave'가 열렸습니다. 지난 3년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성운동을 그려보는 자리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에게 Brave Changes란?

성과공유회는 비건 점심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단체들이 가져온 홍보물과 활동사진으로 홍보존이 꾸러졌고, 그 옆에는 'Brave Wall'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3년, 나를 버티게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각자의 답을 써 붙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환영 인사에서 여성운동이 사회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이름 없던 경험에 언어를 부여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여성 건강권, 돌봄, 장애, 이주, 기후정의 등 사회가 보지 못한 곳을 먼저 비추고 질문을 던져 온 힘이 여성운동이었다고, Brave Changes도 그 흐름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Brave Changes 용감한 활동



여성환경연대는 재활용 선별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사측이 보낸 사람 아니냐며 경계하던 이들에게서 잦은 사고와 ‘혐오시설’ 노동자라는 낙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혁명적 사랑’을 주제로 돌봄의 의미를 확장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청소년과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운 전시와 캠페인으로 3년간 49만 명을 만났습니다.

젠더교육플랫폼 효재는 백래시 속에서도 참여 중심의 성평등 교육을 이어가며 거창한 변화보다 ‘우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심사와 컨설팅을 맡아온 강혜란, 이미경, 홍미희 배분위원도 무대에 올라 현장에서 3년간 만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손목에 깁스를 한 채 홀로 바자회를 열어 500만 원을 마련했던 활동가, 겨울마다 운영위원의 사비로 버텨온 단체 등. 활동가들은 여성운동 생태계조성사업의 지원을 ‘산소호흡기’이자 ‘가뭄의 단비’라 불렀습니다.



3년 연속 ‘여성운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5개 단체가 무대에 올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서울여성회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를 맞아 바닥에 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전국에서 60차례 진행하며 시민 1만여 명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플랫폼 기업이 실제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영상물 삭제제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까지 묻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Brave Changes 용감한 영감과 연결

코어 지원, 콜라보 지원, 활동가 심 지원, 기획지원에 참여한 단체들이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구여성노동자회’는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던 때 이 사업이 안전망이 되어주었다고,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어떻게 버틸지가 가장 큰 고민이던 때 힘이 되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의 ‘이주와 가치’는 건강보험 밖에 놓여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주여성을 도울 수 있었고, 치료를 마친 이주여성이 “가장 잘하는 일로 보답하고 싶다”라며 사무실 청소와 이삿짐 정리를 거들었다는 후문을 전했습니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응답한 활동가 38명 모두가 사업이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89.5%는 여성운동 안에서 서로의 연결과 협력이 넓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여성운동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이날 참가자들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갈 동료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성과공유회를 마무리하며 노지은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은 Brave Changes를 여성운동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실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Brave’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지 오래 고민했어요. 3년 뒤 이 자리가 <We are Brave>로 마무리되는 걸 보며, 그 이름을 고른 것 자체가 시작이었구나 싶습니다. 콜라보와 코어 지원은 재단이 처음 해보는 방식이었지만 후원처가 재단을 믿고 단체들이 재단을 신뢰하며 동행했기에 이러한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지원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업이 보여주었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이 사업이 엮어낸 연결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단체와 단체, 지역과 지역이 씨줄과 날줄처럼 이어질 때 여성운동의 생태계는 더 단단해 집니다. 지난 3년간의 활동으로 Brave Changes가 남긴 것은 앞으로도 함께 이어갈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글 - 전략사업팀 장근영



* 행사 스케치 영상은 한국여성재단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첫 만남

현장 속으로

카메라 렌즈로 세상의 경계를 넓히다



세상의 가장자리를 비추는 카메라 렌즈는 쉽게 지나치기 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1초에서 1/1,000초의 짧은 시간이 누군가의 렌즈에 담기면 여러 세대를 지나도록 기억되는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24년, 한국여성재단은 묵묵히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해 나가는 여성 창작자들을 지원하며 여성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는 여성 예술인들에게 개별 창작지원금 500만 원과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제공하며 창작활동에 대한 응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 만남, 서로를 그리고 사업을 알아가는 시간

지난 3월 12일에는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작자들과의 첫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분야의 김소라, 김지윤 작가와 영상 분야의 권우정, 김다형, 김진열, 양주연, 유혜민 작가까지 총 7인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만남에 어색하리라 예상했던 것도 잠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먼저 감정표현카드로 오늘의 내 상태를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신난다', '자유롭다', '멍하다' 등 다양한 감정 카드 중 지금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카드 1장과 워크숍이 끝났을 때 느끼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는 카드 1장, 총 2장씩을 선택해 대화의 물꼬를 텃습니다. 또한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모두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여성재단에 대한 소개와 사업 일정, 최종 결과물 제출 안내 등 사업 수행 관련 교육이 이어졌고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첫 만남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분야는 달라도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공통점 덕분인지 미소로 서로를 환대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곱 빛깔 프로젝트

올해 선정된 작가님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사진 분야로 거대한 노동 운동의 역사 뒤에 가려졌던 여성 노동자 개개인의 삶과 감정, 몸의 기억을 현재의 시점으로 다시 불러오는 사진·사운드 작업 프로젝트에 이어 욕실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몸과 회복의 경험을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진 기록을 넘어 설치 전시, 아카이브 북 발간 등으로 결실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영상 기록 위주의 프로젝트들이 다수 선정되었는데, 그 주제가 다양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기후 변화로 재배지가 복상하는 격변 속에서 사과나무와 운명을 함께하는 여성 농민들의 삶을 단편 영화로 기록하기도 하고, 이성애자 남성 중심적 언어에서 소외된 여성 성소수자들의 몸과 역사를 가시화하는 프로젝트, 기후 운동의 현장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20대 여성 활동가들을 기록하는 작품, 광장과 도시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쓰레기 문제와 그 이면의 여성 노동을 조명하는 작업까지. 여성의 몸과 노동, 기억과 장소, 그리고 기후와 생태의 문제를 작가의 고유한 시선과 방식으로 들여다보며 여성들의 삶을 새롭게 비추는 작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채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 예술인의 프로젝트들은 7월에 '중간보고회'를 통해 공유와 점검의 시간을 가지며 작품활동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작품을 마무리하는 연말에는 '작품 공유회'를 통해 각자의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한 순간을 이들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활동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살랑살랑한 바람이 부는 봄에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 차가운 겨울을 향해, 7명의 여성 예술인들의 작업과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 예술인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응원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며 동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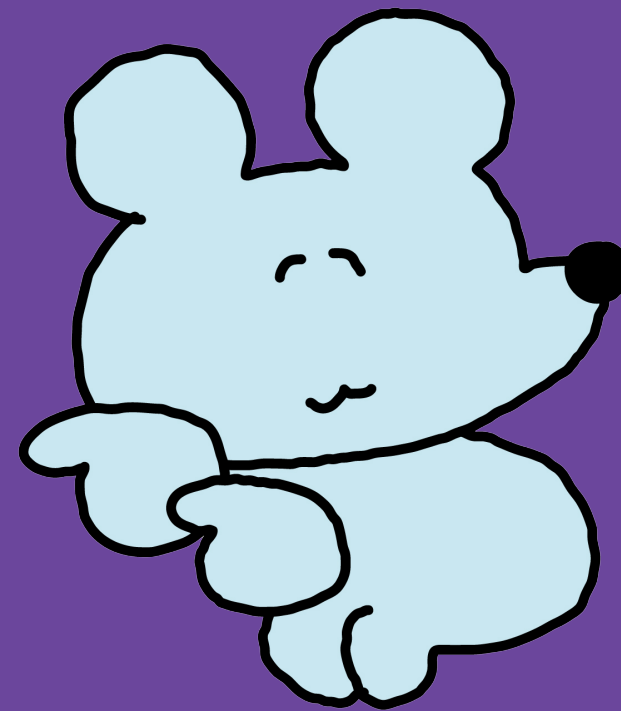


글 - 나눔기획팀 임현정, 전략사업팀 고마음

쥐순이가 전하는 위로와 연대, 수키도키 작가를 만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파되는 나눔의 힘을 믿어요



2025년 SOS기금으로 함께하며 한국여성재단의 기부자로 동행하고 있는 수키도키 작가님을 인터뷰로 만났습니다.

작가님은 캐릭터 톤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과 불안 등 현실적인 고민과 감정을 유머와 공감으로 풀어내며 대표 캐릭터 '쥐순이'로 많은 독자들, 특히 2030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서 《인생은 내 적성이 아닌가 봐》, 일기장 《뭐가 내 속마음일지》 등의 출판과 캐릭터 콘텐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대중과 소통하고 사랑받고 있는 수키도키 작가님의 진솔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수키도키 작가 '쥐순이' 캐릭터

Q. 수키도키 작가님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 작가이자 캐릭터 브랜드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수키도키입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만화를 연재하던 작가였습니다. 그림 일기 형식의 만화였는데 많은 분들의 공감에 힘입어 꾸준히 연재하다 보니 캐릭터 브랜딩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Q. 시그니처 캐릭터 쥐순이를 만들게 된 계기

쥐순이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려왔던 캐릭터입니다. 어릴 적 제 별명이 쥐를 의미하는 '찍찍이'였거든요. 거의 매일 쓰던 일기에 그렸던 그 친구가 일기의 주인공이 되곤 했습니다. 일기의 쥐 캐릭터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의 쥐순이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쥐순이에는 저를 많이 투영해 그렸지만 지금은 저와는 또 다른 별개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애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인데 많은 분들이 쥐순이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팝업 스토어 모습

Q. 여성의 삶과 안전, 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사회적으로 성평등의 개념이나 여성 인권이 지금과는 달랐던 어릴 적부터 여성 관련 이슈와 단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는 여러 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니며 언젠가 돈을 벌게 된다면 어디든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후원을 꼭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수키도키 작가로서 소득이 생겼을 때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매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여성 이슈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물, 여성과 관련된 기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여성재단에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

평소 청소년 생리대 이슈, 불법 촬영물 문제, 폭력 피해 여성분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중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성 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디에 할지 고민하면서 찾아보다가 한국여성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여성 단체들에게 재단이 우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활동으로 기부금이 쓰여야 할 곳에 잘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여성들을 위해, 다음의 수키도키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쥐순이가 전하는 위로와 연대, 수키도키 작가를 만나다

Q. SOS기금을 선택하신 이유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꼈었는데, 한국여성재단에서 폭력 문제 예방뿐 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회복까지 고민하며 힘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Q.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이란?

나눔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부가 아니더라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일, 길을 가다 주거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잡지를 구매하는 일,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는 일처럼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 또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눔도 전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나도 해보고 싶어지거든요. 제 주변 작가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평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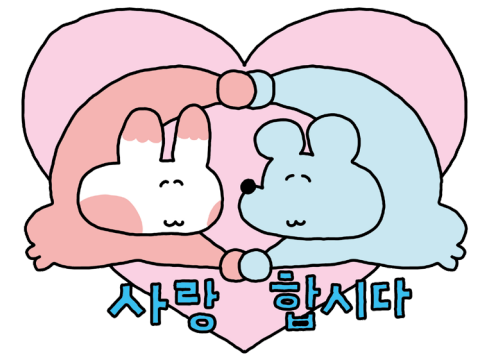
기부든 봉사든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도 채워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한국여성재단의 활동을 응원하며

한국여성재단의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평등 이슈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Q. 작가님의 앞으로의 목표

개인적인 목표로는 많이 성공해서 크게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쥐순이 캐릭터와 함께 저 또한 성장과 발전을 하고 싶고, 성공이 저 혼자만의 성공에서 그치지 않고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성평등과 폭력 이슈에 관심을 갖고 여성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나눔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수키도키 작가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앞으로의 활동에 응원을 전하며, 한국여성재단도 전파되는 나눔의 힘을 믿고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 나눔기획팀 박정아, 신을진



10년차 성평등 교육 활동가 김정은 강사를 만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안전한 내일을 그립니다

스마트폰 액정 너머의 세상이 현실만큼이나
거대해진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정교해지고 교묘해진
디지털 성폭력의 위협 속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일 교실의 문을 두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동북여
성민우회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에 참여
한 이후 올해로 10년째 지역 사회의 성인지 감수
성을 깨우고 있는 김정은 강사가 바로 그 주인공
입니다.

202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알고, 깨닫고, 실천
하여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 교육에도 강사
로 함께하고 있는 김정은 강사님과 현장에서 인터
뷰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2: 10년차 성평등 교육 활동가 김정은 강사를 만나다

Q. 성평등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100시간의 성폭력 전문 상
담원 교육 2기 과정을 수료했고,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과정도 이수한 후 교육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
다.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이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로부터 성차별
적인 표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의 효과가 참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교육 대
상자들의 사고와 언어,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며
성평등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며 느낀 교실의 변화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오랫동안 진
행해 오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입
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교 안에서 본인이 경험한
성차별적 에피소드를 쏟아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
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 현장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
면 예전에 비해 아이들이 관련 경험을 많이 토로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조
금씩 확산되며 생긴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세상을 변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디지털 세상의 현재, 그리고 과제

시대가 바뀌며 교육의 가장 시급한 의제로 떠오른
것은 단연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접하
는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가 거의 없고, 디지털 기기를 매우 능숙하게 사용
하는 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는 주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자는 수동적
인 방향이 컸다면,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
가 되지 않는 법, 단체 채팅방에서 원치 않는 영상이 공
유되었을 때 방관자로 있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는 법,

그리고 주변의 피해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
르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Q. 성평등 교육의 한계와 필요한 지원

가장 아쉬운 점은 교육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 기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미 성평등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성
을 인식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교육이 꼭 필요한 분들은 참여할 기
회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을 받
아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기관
이 함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하
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교육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변화시
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
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지역
사회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만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초등 학생들이 작성한 남자·여자라서 듣는 말

남자랑 남자랑 국밥까지	여자는 집안일 해야해	여자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안녕히
안어용 장~	바지를 래 입어야한다.	집안일을 해야한다. 남자는... 힘이 세야한다
여자는... 머리가 디벨로 되어야한다. 다소곳 해야한다.	남자는 집안일을 해야해	여자는 머리가 디벨로 되어야한다. 다소곳 해야한다.

Q. 강사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디지털 세상의 모습

한국여성재단에서 지원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초등 고학년 학생들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함께 한 아이들과 약속한 건 '배운 것을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르쳐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제목처럼 아이들이 알고, 깨닫고, 실천하여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꿈꾸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은 기술의 발전만큼 윤리적 책임감도 함께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디지털 공간이 혐오와 폭력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모든 성별과 주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게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 나눔기획팀 박정아, 배소영



'알고, 깨닫고, 실천하여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 교육

Q. 기부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아이가 바뀌고, 그 아이가 주변인을 바꾸고, 그 주변인이 또 다른 주변인을 변화시키면 결국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전체가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적 같은 변화의 도미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조각을 놓아주신 한국여성재단의 모든 기부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평등 교육 현장에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모두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위한 일에 애써오신 김정은 강사님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으로 서울 동북여성민우회를 포함한 12개 여성단체들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재단활동 2026년 1월-6월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미래여성 NGO리더십과정 19기 연구보고회 및 20기 장학증서 전달식

2월 11일, 미래여성 NGO리더십과정 제 19기 연구보고회 및 20기 장학증서 전달식이 성공회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성공회대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유한킴벌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재단 관계자와 18기 졸업생, 19·20기 장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장학증서 수여와 졸업생 대표의 감사 인사, 연구보고회 발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열린 이 자리는 지난 20년의 연대가 얼마나 단단한 토대 위에서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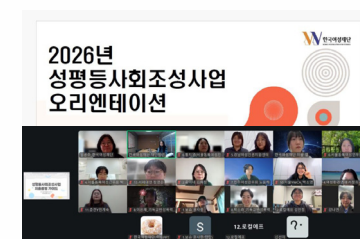
세계 여성의 날 해피빈 모금

2월 13일부터 3월 9일까지,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하여 SOS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기부로 구성된 SOS 기금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활동을 펼치는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총 605명이 함께 해주었으며 모금액은 9,022,300원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2026년에도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SNS이벤트 & 제41회 한국여성대회 부스 참여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여성의 권익과 성평등 사회를 응원하는 문장 완성하기 SNS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3월 7일에는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열린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 부스로 함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52개 단체들의 활동 소개와 다채로운 시민참여 이벤트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활동과 SOS기금을 알리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밝고 열정적인 분위기의 현장에서 여성단체와 활동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오리엔테이션

3월 18일,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자유주제 분야 3개 단체, 폭력 예방 및 해결 분야 5개 단체, 성평등한 돌봄사회 조성 분야 2개 단체, 차세대여성운동 지원 분야 2개 단체, 총 1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사업 방향과 일정을 나누고, 단체에서는 담당자가 각자의 사업을 소개하며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

3월 25일, 한국여성재단 W나누리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주여성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은 각자의 강점을 찾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고 시로 다양한 업무들을 효율화하는 실무 교육 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부터 회계, 교육과 상담까지 다양한 역할을 홀로 감당하기에 늘 분주한 활동가들에게 함께 배우고 집중한 이번 워크숍이 유의미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성 기후돌봄 지원사업 기후 살림 메이커스 사업수행 교육

여성 기후돌봄 지원사업 기후 살림 메이커스는 성평등한 기후돌봄 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속 돌봄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사업 수행 안내 교육과 함께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기후 살림 메이커스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각 단체의 활동 포부에는 8개월간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펼칠 다양한 경험과 실천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육미혼모지원사업 With Mom Project 연대치대 여동문화 기부금 전달식

4월 9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연대치대 여동문화의 '여동문의 밤' 행사와 더불어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연대치대 여동문화는 2017년부터 양육미혼모 지원을 위한 With Mom Project에 나눔으로 함께 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1억 3,000여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동문들의 지속적인 기부참여로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가장 종합검진 지원 & 힘내라 딸들아! 해피빈 모금

5월, 한국여성재단에서는 두 건의 해피빈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장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합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생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생리대 파우치를 지원하는 모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모인 소중한 모금액은 6명의 저소득층 여성 가장과 8,000명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17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개강식

5월 13일, 이화여대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17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개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성활동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실천의 힘을 키우는 배움의 장을 여는 시간으로, 장학금 수여식과 두 개의 강연 이후 참여자들의 네트워킹 시간까지 이어져 현장의 고민과 실천 경험을 나누는 첫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팩트 조성사업 킷오프미팅

5월 21일,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팩트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킷오프미팅이 열렸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를 함께 정의하고, 체계적인 임팩트 측정을 통해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단 관계자, 협력사, 참여 단체 대표 등 총 14명의 사업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에 대한 기대와 포부 등을 나눈 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운동 생태계조성사업 <Brave Changes> 코어·콜라보 지원사업 결과보고회

6월 5일과 9일, 여성운동 생태계조성사업 <Brave Changes>의 여성단체 코어 지원 및 콜라보 지원사업 결과보고회가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총 20여 개 참여 단체가 온라인에서 모여 그동안의 사업 결과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며 겪은 여러 에피소드와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성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배움까지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5기 오프닝 파티

6월 27일, 하자센터에서 2026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5기 오프닝파티가 개최되었습니다. 여성 청년 참가자 30명이 모여 서로를 소개하며 환영하는 시간에 이어 작년 참여자들이 참여 소감, 응원 메시지를 나누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이번 사업이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며 주체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행



2025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2025년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총 11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는 성평등사회조성, 폭력 예방 및 해결, 성평등한 돌봄사회 조성,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과 수시지원사업의 분야별 여성단체 주요 활동들을 담았습니다.



2025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한국여성재단의 2025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기금조성과 나눔문화 확산,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인권 보장, 여성임파워먼트,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지원, 대외협력 등의 영역별로 진행된 다양한 활동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 명단 2026년 1-6월

개인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

강덕순 고한결 김가현 김동휘 김상훈 김승혜 김운모 김정임 김평강
강명신 공옥분 김갑순 김돌순 김상희A 김시아 김운수 김정자 김하경
강범희 공태숙 김강연 김득현 김상희B 김시환 김운주A 김정주 김하연
강보길 객메어리 김건우 김리원 김생기 김신희정 김운주B 김정현 김하영
강보승 객숙희 김경덕 김명선 김서연 김아라 김윤지 김정혜 김하진
강순애 객슬비 김경란 김명숙 김선미 김애숙 김윤철 김정화 김한별
강순자 객영선 김경미 김명일 김선호 김애정 김운환 김정희A 김한솔
강영아 객은숙 김경숙A 김명진 김선희A 김양지영 김윤희A 김정희B 김행욱
강원화 객지혜 김경숙B 김명혜 김선희B 김엘리 김윤희B 김종덕 김행인
강윤서 구경애 김경애 김명화 김성규 김여울 김은경 김종순 김향미
강윤아 구민수 김경임 김명희 김성근 김연덕 김은미 김주환 김현미A
강은나 구상권 김경혜 김모란 김성례 김연례 김은솔 김주희 김현미B
강은비 구옥순 김경화 김문희 김성분 김연미 김은숙A 김준승 김현민
강은숙 구자민 김경희A 김미경A 김성숙 김연수A 김은숙B 김지나 김현빈
강재진 구춘자 김경희B 김미경B 김성원 김연수B 김은순 김지민 김현숙
강정녕 구태우 김경희C 김미숙 김성주 김연화 김은실 김지연 김현아
강정민 국미애 김광수 김미순 김성현 김연희 김은우 김지영 김현영
강제훈 국영자 김광재 김미애 김세은 김영란A 김은정A 김지원A 김현지
강종남 권경아 김광하 김미영 김세화 김영란B 김은정B 김지원B 김형기
강종완 권동휘 김권호 김미자 김소민 김영선A 김은주 김지원C 김혜경
강지연 권 미 김귀옥 김미주 김소는 김영선B 김은진 김지향 김혜리
강지혜 권민아 김규남 김미향 김슬희 김영신 김은혜 김지현A 김혜미
강태인 권민지 김규리 김미희 김수경 김영옥 김은희 김지현B 김혜숙
강태희 권보현 김규연 김민경 김수민A 김영원 김의향 김진근 김혜영
강현숙 권새롬 김금례 김민서 김수민B 김영재 김이경 김진미 김혜은
강현철 권소연 김기선 김민솔 김수빈 김영주A 김인선 김진성 김혜정
강혜란 권소영 김기연 김민재 김수연A 김영주B 김인숙A 김진수 김혜진
강혜선 권순옥 김나리 김민정A 김수연B 김영혜 김인숙B 김진숙 김호영
강혜선 권순필 김난이 김민정B 김수영A 김영화 김인순 김진옥 김희성
강혜원 권순희 김남희 김민주A 김수영B 김예원 김인영 김진용 김효선A
강혜정 권신자 김다빈 김민주B 김수정 김오목 김인춘 김진일 김효선B
강호간 권애원 김다영 김민중 김수진 김옥경 김잔디 김진태 김후주
고경표 권영빈 김다형 김민지A 김수현A 김옥은 김장림 김진희A 김희경A
고명화 권예나 김다혜 김민지B 김수현B 김 율 김재구 김진희B 김희경B
고명희 권유경 김대숙 김민채 김수현C 김용강 김재민 김차순 김희성
고선주 권은숙 김대승 김병관 김숙경 김용덕 김재삼 김창근 김희연
고수민 권정순 김대청 김병두 김숙연 김우향 김재연 김창연 김희정A
고영주 권주미 김덕선 김보라A 김숙주 김은비 김재춘 김춘지 김희정B
고영진 권진희 김도수 김보라B 김숙희 김운주 김정란A 김춘희 김희진
고윤숙 권태영 김도연 김보승 김순근 김원모 김정란B 김태연
고재순 권태완 김도윤 김보연 김순덕 김유미A 김정민 김태옥
고지애 권태정 김도협 김복열 김순동 김유미B 김정선 김태옥
고지영 권효린 김도희 김봉일 김순연 김유진A 김정순A 김태웅
고지원 김가연 김동식 김봉기 김순영 김유진B 김정순B 김태환
고채우 김가은 김동혁 김상분 김승연 김윤경 김정은 김태훈

기부자 명단 문의: 나눔기획팀 02-336-6463

*집계기준일(납부일) 2026.01.01~06.30

㉡

나인영 나진희 나혜림 남기용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노무현 노선숙
노수현 노애리 노옥련 노정아 노지은 노태운 노형수 노혜진

㉢

도경희 도남래 도인정 동고은 동 주 두석호 두애린 디어제리

㉣

류영선 류유선 류은정 류인혜 류정빈 류채현 류춘희 류현우

㉤

마경희 맹혜정 모혜자 문경숙 문금주 문은영 문재웅 문희영 민용기
마정윤 명진숙 모희현 문경환 문시윤(문의성) 문재호 민병주 민지유
맹지열 모지은 문경란 문경희 문영호 문인선 문현아 민영선 민현주
맹필수 모혜빈

㉥

박가현 박명자 박성택 박승진 박 윤 박주연 박 현 배명진 백선자
박건혜 박미나 박성화 박신혜 박은서 박준용 박현순 배선희 백성원
박경림 박미연 박성희 박애경 박은위 박지성 박현자 배성신 백수안
박경태 박미화 박세경 박애리 박은정 박지수 박현진 배성환 백승희
박경희 박민성 박세울 박영남 박은희 박지연 박현화 배소영 백연아
박귀천 박민정 박소민 박영삼 박이례 박지영 박현희 배은우 백영경
박규리 박민혁 박소연A 박영주 박재은 박지원 박형주 배은주 백종하
박규태 박민희 박소연B 박영준 박정근 박지은 박혜란 배철용 백지수
박기남 박봉정숙 박소진 박영희 박정례 박지효 박혜선 배한영 백형철
박기순 박사용 박송이 박예경 박정연 박진선 박혜숙A 배현지 백화선
박나리 박삼숙 박수미 박옥필 박정자 박진우 박혜숙B 백가은 변민주
박동렬 박상진 박수연 박옥희 박정희 박찬민 박효숙 백경자 변서영
박동연 박상현 박수진 박용분 박종남 박찬주 방도아 백경흔 변성윤
박득숙 박석자 박수현A 박용선 박종대 박춘순 방윤혁 백상연 변영선
박명수 박석준(82메이저) 박용호 박추선 박태경 배기욱 백선숙 복금희
박명숙 박선의 박수현B

㉦

서동규 서은미B 서현숙 성경애 송가영 송은영 송혜령 신영미 신지열
서동욱 서은영 서혜정A 성경현 송기욱 송인경 송호선 신용선 신진남
서동인 서점순 서혜정B 성형주 송기원 송인범 송호중 신원영 신창재
서동진 서정민 서희경 소가현 송다영 송임선 순수정 신유정 심누리
서민우 서정호 서희숙 송경화 송명순 송정미 신미순 신은섭A 심복길
서 속 서조아 석나리 손순연 송미령 송정민 신민성 신은섭B 심숙경
서승복 서지연 석미화 손갑구 송민수 송정애 신민자 신은숙 심영희
서예린 서지우 석영애 손유진 송상희 송준용 신봉근 신을진 심우용
서옥경 서지현 석용원 손은수 송수진 송지연 신봉남 신의경 심창학
서우찬 서지혜 선은주 손지형 송승원 송지윤 신소영 신재욱 심현구
서유빈 서지희 선진국 손진화 송영순 송지혜 신여명 신종은 심현숙
서은미A 서진석 설영수 송가경 송영호 송채린 신연주 신주진 심혜경

㉧

안건희 여진경 유숙자 윤진아 이루오 이소희B 이완정 이재희 이현순
안경모 엄미정 유승완 윤진영 이문숙 이승은 이용갑 이정민A 이현재
안기선 엄미화 유우진 윤채원 이미경A 이송희 이용선 이정민B 이혜민
안미영 예은숙 유재순 윤현주 이미경B 이수미 이용성 이정민C 이혜영
안미화 오가영 유재현 윤혜린 이미란 이수민 이용일 이정숙 이혜임
안소정 오경숙 유정미 윤호준 이미숙 이수빈 이우진 이정연 이혜희
안수란 오경철 유정신 은채원 이미영 이수연 이원선 이정원A 이호경
안순화 오금식 유정원 은초리 이미정 이수옥 이원식 이정원B 이호선
안승용 오동석 유정희 음종성 이박혜경이수이 이우경 이정은 이홍재
안승옥 오명순 유준형 이강란 이반하 이수정A 이우리 이정인 이호대
안은성 오명옥 유지숙 이강수 이병주A 이수정B 이우정 이장자 이호숙
안인영 오상길 유지은 이근정 이병주B 이수진 이우진 이정현 이효진
안중희 오세연 유해나 이경선 이보라미이수현 이우현A 이종순 이홍재
안주현 오솔임 유해미 이경숙 이복순 이수희 이우현B 이주연A 이희원
안지현 오수정 유현정 이경순 이봉찬 이숙인 이윤경 이주연B 이희정A
안필락 오수현 유혜경 이경신 이상민 이숙진 이윤성 이주홍 이희정B
안현희 오영미 유혜윤 이경준 이상아 이숙향 이윤재 이주희 이희준
안형준 오윤경 유환구 이경진 이상연 이순오 이윤재옥 이준혁 인혜린
알파드라이브원씨들 유희림 이경후 이상엽 이순현 이윤지 이지민 임경륜
앙미애 오정순 유희정 이경희A 이상우 이슬기 이은규 이지수 임경숙
앙민식 오정원 육성희 이경희B 이상운 이승상 이은영 이지연 임경자
양서랑 오춘희 육희선 이계경 이상원 이승수 이은자 이지영A 임경훈
양서연 오하늘 윤경숙 이광미 이상은 이승영 이은정A 이지영B 임규미
양선주 오현빈 윤계원 이규선 이상익 이승은 이은정B 이지우 임규태
양솔이 오현석 윤말이 이규원 이상태 이승준 이은정C 이지은A 임덕희
양옥경 오현정 윤미리 이그림 이상현 이아람 이은주 이지는B 임성원
양용규 오혜정 윤미재 이근정 이서연 이아름 이은행 이진경 임소울
양지연 왕인순 윤비연 이근주 이서영A 이애란 이은희A 이진주 임수진
양진호 우남선 윤선우A 이금복 이서영B 이양주 이은희B 이찬영 임순영
양태정 우상숙 윤선우B 이금순 이서현 이애덴 이은희C 이채연 임영주
양현식 우지수 윤선정 이금임 이선미 이연옥 이의녀 이채원 임우경
양현정 원취연 윤성희 이기연 이선영A 이연이 이이섭 이철수 임윤아
양호정 위소희 윤수영 이나경 이선영B 이연지 이인성 이춘아 임은주
양후진 유경모 윤수인 이남순 이선주 이연창 이인숙 이춘희 임인숙
양희영 유경미 윤영배 이다경 이선혜 이영미 이인순 이치우 임정은
엄도아 유경화 윤영은 이대경 이설아 이영순 이인자 이태형 임주이
엄두리 유근아 윤옥경 이덕혜 이상원 이영우 이인화 이택준 임지연
엄미영 유나연 윤유정 이도영 이성은 이영자 이임조 이택호 임지영
엄서영 유다은 윤은정 이도형 이상일 이영주 이임주 이파라 임진식
엄선애 유메기 윤인숙 이동선 이상자 이영희A 이자영 이필영 임초록
엄태호 유보람 윤자영 이동신 이상준 이영희B 이재숙 이하영 임필립
엄해경 유신기 윤정숙 이동하 이상현 이예원 이재운 이한돌 임현정
엔하이픈선우 윤정희 이동훈 이상현 이예은 이재인 이한별 임현주
여미숙 유선희 윤종원 이라영 이소영 이옥의 이재현 이현경 임호근
여예은 유소빈 윤지원 이루리 이소희A 이옥자

㉨

장근영 정유연 장윤호 장철경 전다습 전은서 정구선 정미모 정성화
장나미 정유진A 장인선 장필화 전대근 전진영 정근하 정미자 정세은
장동애 정유진B 장채철 장하경 전민경 전진우 정길석 정미화 정소영
장명련 정유진C 장정훈 장하윤 전부숙 전혜림 정길식 정민수 정소정
장소연 정윤경 장정희 장혁재 전영미 정강자 정다운A 정민영 정수미
장소현 정윤현 장종표 장현진 전예진 정겨울 정다운B 정상철 정수진
장수영A 정윤희 장주연 장혜나 전우용 정경숙 정다정 정서연 정수희
장수영B 정은경 장지영 장혜숙 전유진 정경아 정동환 정서희 정순재
장수홍 정은교 장지은 장희연 전윤미 정경희 정란희 정선경 정승호
장숙영 장윤선 장지혜 재원(SMTR25) 정구상필교 정성녕 정승희

정아름 정유연 정재실 정청자 조권중 조선혜 조운세 조진희 주 영
정아린 정유진A 정재현 정택용 조근희 조성덕 조은비 조천기 주좌영
정아현 정유진B 정점순 정현경 조기한 조성민 조을선 조춘이 주창택
정영숙 정유진C 정정수 정현미 조나연 조성욱 조인자 조현아 주현진
정영애 정윤경 정지아 정현석 조다영 조성희 조임중 조 형 주혜명
정영지 정윤현 정지영 정혜경 조 단 조수용 조정희A 조혜련 지상구
정예진 정윤희 정지원A 정혜상 조명숙 조승연 조정희B 조혜륜 지숙자
정용숙 정은경 정지원B 정희라 조 미 조아라 조준경 조호정 지우 이안
정용주 정은교 정차선 정효지 조민희 조연숙 조지원 조흥식 지윤주
정원영 정은자 정찬영 조경미 조배원 조영한 조진경 주경은 지현석
정원윤 정은화 정창근 조경민 조보원 조옥라 조진주 주선모 진승현
정유경 정인하 정창남 조경숙

㉩

차승현 채용석 최다혜 최보녕 최성철 최영준 최은실 최정유 최형철
차시연 채유주 최동길 최상국사세 최예지 최은영A 최정윤 최혜원
차예송 채은경 최라윤 최세은 최수경 최원석 최은영B 최정인 최환호
차인순 채현자 최 리 최서영 최수원 최원주 최은정 최진희 최효정
차재명 천소연 최립우 최선경 최수정 최유경 최은주 최하람 최효진
차진승 최경수 최명진 최선아 최순복 최유정 최은재 최현숙 최희경A
차혜민 최경일 최문영 최선열 최시현 최유진 최은희 최현호 최희경B
채문희 최광식 최미애 최선영 최영아 최은경 최인미 최형미 추민경
채수경 최남미 최미정 최선혜 최영옥

㉪

판자이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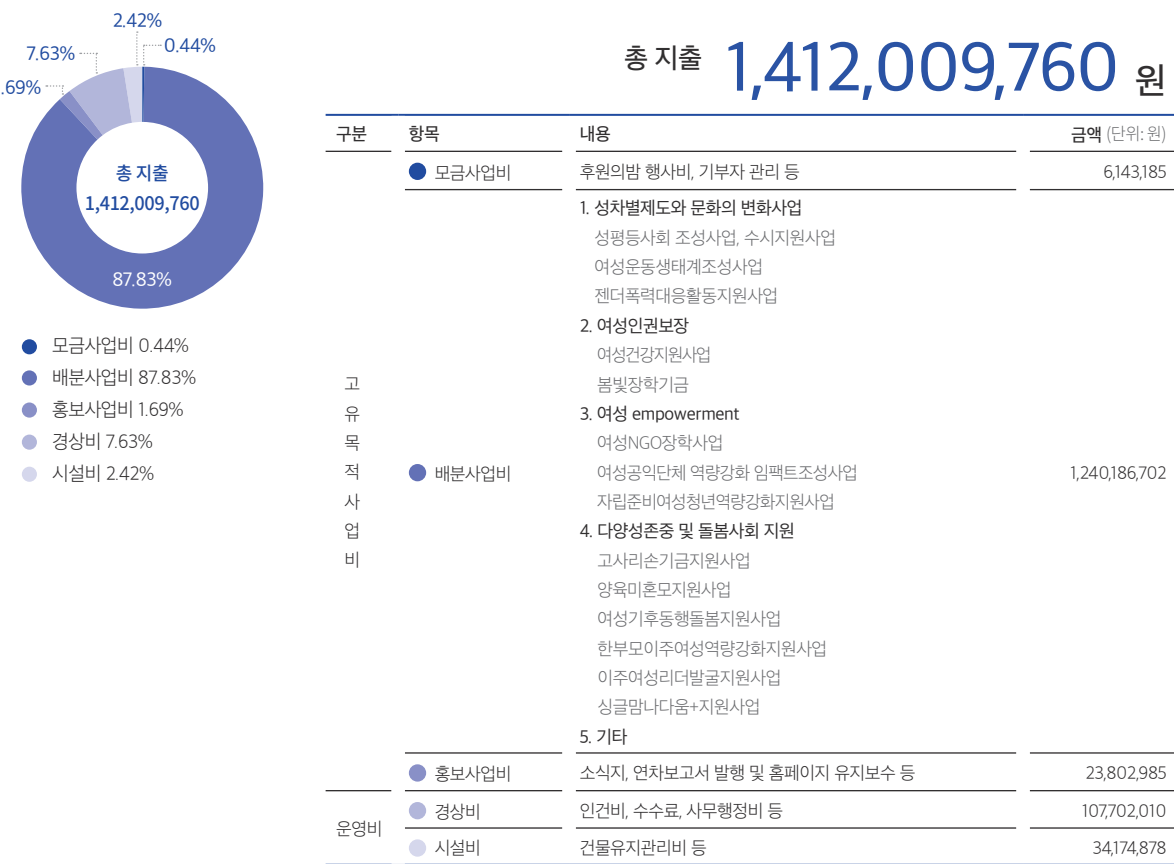
하미선 한아현 한혜린 허우석 홍미영 홍예진 홍희정 황성철 황지원B
하민정 한일순 한혜림 허윤희 홍미희 홍은희 황경주 황소진 황진영
하순원 한정빈 함수현 허은실 홍상욱 홍인숙 황금희 황영진 황훈영
하영선 한정연 함영진 허철준 홍석보 홍정아 황남경 황유주
하자운 한정욱 허남재 허해영 홍석준 홍주연 황다은 황 윤
한명희 한지효 허남혁 현준식 홍성혜 홍지나 황다혜 황은주
한선희 한창호 허미영 홍기태 홍승택 홍지민 황새영 황인섭
한세빈 한태희 허선이 홍 돈 홍영애 홍현옥 황서영 황정혜
한송이 한현옥 허소연 홍미리 홍영희 홍현자 황석민 황지민
한수빈 한혜경 허소정 홍미선 홍예영 홍효정 황선미 황지원A

GLOBALGIVING기부자 롯데카드포인트기부자 무기명기부자 문자기부자
체리(CHERRY)기부자 해피빈기부자

기업/단체

2026속명여성의달 Solventum 교보자산신탁 꾸림 더블유투컴퍼니
덕수엔지니어링 도토리랩스 디얼시 매일참춧김 미래포럼
미리어드(MYRIADUSA INC.) 사랑의열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샤넬재단 스튜디오일오삼 신우카피 아카이브센터 에스쁘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대여성치과의사회 온하루필라테스 올빛컴퍼니
울산여성직전화 유한킴벌리 이오드 이화여대 동문-캐나다 오타와지회
테마노래연습장 프로스페라 한국스트라이커 해일막걸리 호성투어

수입과 지출



기부안내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각계각층의 리더와 124개의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모금과 배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국여성공익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W기금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재단 활동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주제별 사업기금

여성안전 및 폭력 예방, 여성건강지원, 해외여성청소년 자립 및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특별기념일 나눔

돌, 생일, 결혼, 추모 등 특별한 기념일에 나눔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기부

기업 사회공헌, 임직원 나눔, 현물 기부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부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입니다.

온라인 기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 접속, 기부안내 클릭 후 신청
나눔계좌(무통장입금)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창립 이래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여성입니다”라는 확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재단은 모금과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 02-336-6364 F. 02-336-6459 E. womenfund@womenfund.or.kr H. www.womenfund.or.kr